

일본문화의 고층(古層), 『고사기』의 명암(明暗)

이 창 수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현존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고사기(古事記)』의 역사적 수용 성과 그 속에서 재배된 일본문화의 고층으로 제기된 『고사기』의 명암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일본문화의 고층’에 『고사기』가 있다는 것을 발굴한 점에 있으며 그가 제시한 ‘가라고코로(漢意)’와 ‘야마토고코로(大和意)’는 유학과 불교 등 외래사상 체계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었으나 넓은 의미로는 그 사상과 일본 정신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노리나가 이후 그의 학문적 ‘실감’을 결여한 아쓰타네의 국학은 사상운동으로 변질되어 『고사기』는 에도막부 말기의 격동기를 거쳐 ‘국가신도’ 및 초국가주의를 고양하는 ‘전거’로 긍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했다.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마루야마 마사오와 고바야시 히데오라는 두 지식인의 『고사기』 관을 비교해 보면 노리나가의 국수주의적 사상성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며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재배되고 있다. 한편 노리나가의 실증 중시 학문 태도와 ‘실감’ 중시의 문학적성은 고바야시 히데오를 통해 전통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두 지식인이 일본문화의 고층을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활동반경이 달랐던 만큼 각자 다른 접근법을 채택했으나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문화의 고층을 『고사기』에 두고 이를 노리나가의 『고사기전』과 동기화하면서 그 요소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 유산으로 간주하고 치밀하게 탐구했다는 점, 또 하나 일본문화는 역사적 사실로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정신으로 재배되어 계승된다는 점을 중시하며 중단없이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고사기』, 고층, 모토오리 노리나가, 고바야시 히데오, 마루야마 마사오

I. 들어가며

‘문화’는 영어로 ‘culture’라 번역한다. ‘culture’라는 말의 어원은 ‘밭을 갈다’ ‘재배한다’는 ‘cultivate’ 또는 ‘agricultu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culture’에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경작과 재배 과정을 거쳐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어감이 있다.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 비평가인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의 해석은 약간 다르다.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문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말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며 ‘文化’란 옛날 중국에서 무력에 의하지 않고 민(民)을 교화한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권력, 무력, 형벌 등을 이용하지 않고 학식을 쌓고 인격을 갖춘 자가 ‘문덕(文德)’으로 백성을 선도(善導)하는 정치적 수법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나 영어 ‘culture’ 또는 독일어 ‘Kultur’를 ‘문화’에 대입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한때 일본에서는 ‘컬처’를 ‘교양’이라는 말로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바깥에서 많은 교양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소양으로 키우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며 그는 다음과 같은 절충적 개념을 제시한다(고바야시 히데오, 小林秀雄 2004:180-185). “개인의 인격 완성을 위해 먼저 ‘나’를 ‘재배’하고 향상을 위한 신념이 전제되어야 문화를 운운할 수 있다.”¹⁾ 이를 일본문화에 적용하면 ‘일본문화’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유형문화유산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포괄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 고바야시 히데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배되어 온’ - 일본인의 생활이나 사고방식 특히 그 속에 나타난 일본인의 개성 또는 특성을 일컫는 개념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일본문화’라고 하면 ‘다도(茶道)’, ‘가부키(歌舞伎)’,

1) 고바야시 히데오(2004:181-185)가 규정한 ‘문화’의 원의는 원래 중국에서 ‘문덕’을 갖춘 인간, 쉽게 말해 군자의 정치 수법을 의미한 한자표기에 서양의 ‘culture’라는 단어에 담긴 ‘재배’라는 어감을 더해 ‘내(개인)’가 ‘문덕’을 지향하고자 하는 소양을 재배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이쿠(俳句)’ 등 우아하고 고상한 일본의 전통문화를 떠올리기도 하나 또 한편으로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서구 열강과 큰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구의 일원이 되어 산업 국가와 ‘경제 대국’의 지위에 오를 때도 있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그때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일본문화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일본 역사를 통해 ‘재배’ 과정을 거쳐 현대 일본문화로 이르려는 시도는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²⁾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조류를 타고 세계에 일본문화 발신의 필요성을 느낀 일본인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역사적 깊이를 갖고 일본문화론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전후 봉인된 『고사기』가 일본문화의 원점 또는 고층으로 소환되는 일도 잦아졌다. 또한 그 배경에는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두 석학의 논쟁 과정에서 복권된 『고사기』론과 그 근거라 할 수 있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고사기전(古事記傳)』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오늘날 ‘일본문화의 고층’으로 수용되고 있는 『고사기』의 ‘재배’ 과정을 더듬어 보고 그 과정에 나타난 명암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사기』의 성립과 일본 신화

비토 마사히데(尾藤正英, 2000:19)의 견해에 따르면 오늘날 일본에서 고대국가의 기점으로 보는 시기는 대략 4세기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인식이 나온 이유는 ‘고분(古墳)’을 비롯한 고고학 자

2) 우메사오 다다오(梅棹忠夫, 2005:6-7)는 대부분의 일본문화론은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의 주관이나 일본 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단편적인 현상을 다룬 저작이거나 지리멸렬(支離滅裂)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띤 일본 문화의 이해에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료를 중시한 실증사학의 역사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 즉 근대 일본에서는 고대국가 또는 일본문화의 형성 과정을 말할 때 『고사기』와 『일본서기(日本書紀)』라는 고대 문헌이 거의 절대적인 근거였다. 이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면 ‘불경죄’로 처벌된 사실도 있었던 만큼 두 문헌은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의 ‘국체(国体)’ 논리를 뒷받침하는 성전(聖典)이기도 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사고는 거의 사라졌으나 이따금 잊을만하면 ‘신국(神國)=일본(日本)’을 주장하는 보수 정치인의 인식을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그 원점에 『고사기』(712년 성립)가 있다.

먼저 『고사기』는 일본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서기』(720년 편찬)와 함께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지위를 갖는다. 물론 철저한 실증적 입장을 견지하는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고사기』=역사서로 보는 견해에 부정적이지만 그러한 위상을 갖게 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라는 일본 근세의 국학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고사기』에는 서문(序)이 있고 그 서문에는 『고사기』가 712년에 성립되었다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서문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성립 이후 『고사기』는 8년 뒤에 편찬되었다는 『일본서기』는 물론 1000년 가까이 공적 문서나 역사서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전 역사를 통해 보면 고대사 연구의 중심은 『일본서기』였고 간혹 『일본서기』 신대권(神代卷)을 강독 하던 중세 신도가(神道家)들 사이에서 보조자료로 활용된 흔적이 보이는 것은 『고사기』의 원문이 공적으로 인용된 적도 읽힌 적도 없이 1000년 가까이 봉인되었다가 18세기 말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이세(伊勢)’라는 지방의 의사가 35년간에 걸친 주석작업 끝에 발표한 『고사기전(古事記伝)』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일본인은 비로소 『고사기』를 음미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바야시 히데오 1987:457).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리나가에 의해 『고사기』가 발굴된 것이다. 그래서 『고사기』

의 연구사를 거론할 때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전과 후가 다르다.

『고사기』의 구성을 보면 앞부분은 모두 ‘신화(神話)’이다. 그런데 ‘신화’라는 용어는 근대 신화학이 도입된 이후의 개념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신대(神代)’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신대’란 신의 세계가 아니라 신의 시대라는 의미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모두(冒頭)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고대 일본에서는 ‘신대’ 다음에 천황의 시대를 의미하는 ‘인대(人代)’가 이어졌다는 역사 인식을 나타낸 표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신대’나 ‘인대’는 기년법의 작위성이 현저하고 편자의 왜곡과 윤색도 많아 사료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 학계의 정설이지만 오늘날 신화의 가치가 새삼 부각하면서 『고사기』는 ‘위서’ 여부를 떠나 일본의 언어, 문학, 사상, 민속의 고층이라는 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복권되고 있다(우메하라 다케시, 梅原猛 1983:223). 또한 이러한 관점 역시 18세기말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통해 밝혀진 이후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그럼 『고사기』의 상권에 묘사되어 있는 ‘신대’ 흐름을 개관해 보자. 제일 먼저 ‘창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조화(造化) 3신이 ‘나타나고(成)’, ‘다음(次)’으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는 음양신이 신체적 결합을 통해 일본의 국토를 ‘낳고(生)’, 이어서 산천초목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낳는다(生). 그리고 불의 신(火神)을 낳다가 황천국(黃泉國)으로 떠난 이자나미를 이승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이자나기가 황천국을 방문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서 묻은 더러운 때를 씻어내기 위해 ‘미소기(禊)’라는 정화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신들 및 ‘삼귀자(三貴子)’가 출생하고 그중에서 ‘아마테라스(天照大御神)’가 천상계로 설정된 ‘다카야마하라(高天原)’의 통치자로 결정된다. 그다음의 이야기는 아마테라스의 동생인 ‘스사노오(須佐之男命)’가 이즈모(出雲)라는 곳에 내려가 ‘오로치’라는 괴수 퇴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의 후손인 ‘오쿠니누시(大国主神)’를 중심으로 이즈모 신화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다시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가 지상으로 강림하여 지상신의 딸과 결

혼 후 그 후손이 대대로 일본 군주인 천황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신대’ 이야기의 핵심은 근대 역사학자인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963:10-11)가 문헌 비판적 입장에 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국토의 생성 과정과 그 국토를 지배하는 천황의 통치권이 천신(天神) 계보에서 유래한다는 신성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시 야마토 조정에서 활약한 궁중 지식인이 정치적 의도를 담아 만들어 낸 창작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이후 일본 신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류적 평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³⁾ 그 발상의 근저에는 문예적 의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⁴⁾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오늘날 『고사기』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주석서인 『고사기전』이래 일본문화의 ‘고층(古層)’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Ⅲ. 『고사기전』과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신화론

지금의 미에현(三重県)에 해당하는 이세(伊勢)의 마쓰자카(松坂)라는 한 시골 의사였던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사기』 해독에 바친 인물로 유명하다. 그 결과로 나온 주석서가 바로 『고사기전(古事記傳)』이다. 그 이전에 『고사기』는 필사본 형태로 극히 일부 신도기들 사이에서 비전(祕傳)으로 전해진 문헌이었다. 그런데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살았던 에도시대는 인쇄 출판이 크게 발달하고 책도 상품으로 유통되어 서민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

3)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963:11)는 에도시대 유학자의 관점을 인용하여 신대사의 이야기는 ‘허구’이자 황당무계한 내용인 만큼 신용할 수 없고 사료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미타니 에이이치(三谷栄一, 1974:34)는 『고사기』에는 편찬 당시 여러 가문 또는 지방 전승, 씨족의 다양한 전승 문예가 투영되어 있으며 문예적인 구성, 구상에 배려하고 이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예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 1610년경에는 『일본서기』가 판본으로 나왔고 30년 후인 1644년에 『고사기』도 교토의 한 절에서 출판되었다. 이것이 「간에이판본(寬永版本)고사기」이다.(사이토 히데키, 齊藤英喜 2012:96) 모토오리 노리나가 는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 20대에 의학을 배우기 위해 교토에서 유학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의학을 배우려면 먼저 한문과 한학(漢學)을 배워야 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교토의 유학자이자 의사였던 호리 게이잔(堀景山)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의학과 한학을 배우면서 틈틈이 일본 고전에도 취향을 가졌다. 그가 교토 유학 중 수집한 고전 목록에는 『고사기』 판본은 물론 일본 고전 운문집과 산문집이 다수 있었고, 게이추(契沖)라는 국학 연구자가 주석을 단 『만요슈(萬葉集)』 등도 있었다. 교토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의사를 개업하고 전업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설강하며 고전 탐구에 힘썼다. 그러나 당시 ‘조닌(町人)’, 즉 상인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태생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한학(유학)’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고 그의 학문은 오로지 사적인 취향을 즐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사가라 도오루, 相良享 1978:9-10). 그 과정에서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일본 국학(國學)을 개척한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와의 만남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며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아 『고사기』의 해석에 착수하여 집필 후 35년 만에 대작 『고사기전』을 완성한 것이다. 이후 그의 저작은 일본인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일본 고전을 탐구한 국학자와 국수주의적 일본 사상가라는 양면성을 갖게 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고사기』가 1000년 넘게 잊힌 이유 중 하나에는 표기법의 문제가 있었다. 『고사기』는 모두 한문으로 쓰였으나 이는 정통 한문체가 아닌 ‘변칙 한문’, 다른 표현으로는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섞어 쓴 ‘화한(和漢)혼용체’라는 표기법이다. 이는 당시 한문 교양을 갖춘 지식인들의 눈으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서물(書物)’에

지나지 않을 만큼 읽으려 해도 쉽게 읽히지 않는 문체였다. 그런데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35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들여 『고사기』 해독을 마친 후 새롭고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외국 문자인 한문에 익숙한 지식인의 눈에는 그저 투박하고 허술한 문제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한문이라는 외국 문장과 사상에 찌든 사람들의 편향된 시각일 뿐, 『고사기』의 문체야말로 한문에 물들기 전에 일본인이 자기감정을 있는 그대로 쓴 소박하고 꾸밈없는 문체이자 그것이 진짜 옛 일본어라고 주장했다. 즉 그가 말하는 옛 일본어란 한자 표기 성립 이전에 있었던 일본의 진정한 네이티브 랭귀지인 셈이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와 이후 그의 영향을 받은 국학자들은 이를 ‘야마토 고토바(大和言葉)’라 불렀다. 이 ‘야마토 고토바’를 중국어 표기 수단인 한자를 빌려 쓴 것이 바로 『고사기』이고 그 속에 바로 고유의 일본 정신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신화론이라 할 수 있는 ‘도(道)’에 관한 관념은 『고사기전』의 서문에 해당하는 「나오비노미타마(直毘靈)」에 잘 나타나 있다. 「나오비노미타마」의 도입부를 보면 일본은 천황가의 선조신(皇祖神) 아마테라스가 출현한 특별한 나라이자 그 아마테라스의 은혜를 받는 나라이므로 대대손손 그 후손이 영구히 통치해야 하며 그 신에게 위임받은 황위가 천지와 함께 부동하다는 것이 정해진 나라라고 전제한다(사이고 노부쓰나, 西郷信綱 1970:169).⁵⁾ 서명에 보이는 ‘나오비’라는 말은 『고사기』 신화에 등장하는 ‘나오비노카미(直毘神)」에서 따온 말이다. 이 신은 이자나기가 황천국을 다녀온 후 더러운 때를 씻는 ‘미소기’의 과정에서 ‘마가쓰히노카미(禍津日神)’ 바로 다음에 태어나는 신이지

5) 본고에서 인용하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저서는 사이고 노부쓰나의 현대어역(西郷信綱(1970), 『直毘靈』, 『日本の名著21・本居宣長』, 中央公論社)을 사용하기로 한다. 사이고 노부쓰나는 언어와 작품으로 『고사기』를 근본적으로 다시 읽고 합리적 사상 또는 낭만적 편중의 관점에서 벗어나 『고사기』 연구의 방법론적 전환을 추구하였으며 『고사기전주석(전4권)』을 집필한 현대 『고사기』 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다.

만 이름만 있을 뿐 어떤 활약도 없으므로 이 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신들의 탄생 이후 곧바로 ‘아마테라스’가 탄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마가쓰히노카미(禍津日神)’의 ‘마가(禍)’라는 한자어에는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고 ‘나오비노카미’의 신명에 보이는 ‘나오(直)’에는 일본어의 ‘나오스(なます), 나오루(なまる)’라는 동사가 ‘고치다’ ‘낫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더러운 때나 재앙(禍)을 물리치는 신(神)이라는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그 영험으로 일본에 붙어 있는 때를 털어낼 때 일본 고유의 도(道)가 드러난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폈다. 또한 노리나가는 세상일이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 사악한 일이 많은 것은 모두 ‘마가쓰히노카미’의 마음에 의한 것이다(사이고 노부쓰나 1970:176). 이 신이 거칠어질 때는 아마테라스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인력으로도 어쩔 수 없다. 일본의 신(神)의 세계에는 좋은 신(善神)도 있고 나쁜 신(惡神)도 공존하며 인간의 마음이나 행위에도 선악이 늘 공존하므로 나쁜 일을 해도 잘될 수 있고 좋은 일을 한 사람도 ‘화(禍)’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세상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그 ‘화(禍)’를 ‘한적(漢籍)의 마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고유의 ‘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마가쓰히노카미’의 업을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나오비노카미’의 영험으로 그 재앙을 고쳐야 한다는 독특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사이고 노부쓰나 1970:184).

다시 말해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말한 일본 고유의 ‘도(道)’란 『고사기』에서 천황의 선조 신인 ‘아마테라스(天照大御神)’가 제시한 ‘도(道)’이며 아마테라스의 신성성은 ‘나오비노카미’의 사전 정화 과정을 통해 더욱 청결해진 지고의 신으로 거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털어내고 씻어내야 하는 ‘마가(禍)’를 중국의 영향으로 간주함으로써 배외주의와 국수주의 사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는 최초 저술 이후 자신의 저작에서 여러 번 중국식 사고를 부정하는 배외주의와 국수주의를 주장한 바 있었기 때문에⁶⁾ 40대에 저술한 「나

오비노미타마는 그의 사상이 더욱 확고해진 결정판이라 볼 수 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 배외주의의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든 ‘한토(漢土=中國)’ 학문이었다. 거기에는 주자학과 다른 입장을 가진 오규 소라이(荻生徂來)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가 살았던 에도시대는 에도막부가 관학으로 삼은 주자학이 여전히 주류학문의 지위에 있었으나 당시 쇼군(將軍)의 정치 자문역을 맡았던 오규 소라이는 정치의 중추부에 있으면서도 주자학을 비판한 인물이었다. 오규 소라이의 학문을 이른바 ‘고문사학(古文辭學)’이라고 일컫는데 비토 마사히데(2000:181)의 설명에 따르면 ‘고문사학’이란 말이나 문장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전제하에 중국 고전에 나타난 ‘문사(文辭)’ 즉 주자학 이전의 문장과 언어를 발굴하여 그 말의 의미를 당시의 어감으로 해석하려는 매우 엄격한 방식이었다.

오규 소라이가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성인론(聖人論)’도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한학’의 한 계열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오규 소라이가 제시한 ‘성인론’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비난한다. “성인이 출현하는 이유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럽고 부패했기 때문이다.”라는 역설은 물론 “유학에서 말하는 ‘道’란 눈속임에 지나지 않으며 성인(聖人)이야말로 겉으로만 현자 흉내 낼 뿐, 그런 자가 오히려 배도(排道)하여 군주를 몰아내고 나라를 탈취한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사이고 노부쓰나 1970:171).

이에 반해 “일본은 원래 인심이 온화하고 성인이 없어도 잘 다스려진 나라이며 그것은 황조신 ‘아마테라스’가 제시한 ‘道’를 역대 천황이 잘 걸어왔기 때문이며 그러한 ‘道’가 잘 유지되는 한 일본은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의 논리는 오규 소라이와 같은 유학

6) 사가라 토오루(1978:26)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최초 저술인 「아시와케오부네(排芦小船)」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저작에서도 중국식 사고를 부정하는 배외주의와 국수주의를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자들이 오로지 한토(漢土) 학문만 숭상하면서 억지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道’가 더러워지고 왜곡되었으니 이국(異國)의 ‘道’를 배격하고 일본 고유의 ‘道’를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며 이 길은 오규 소라이의 주장처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 그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주장한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토오리 노리나가 『고사기전』을 비롯하여 일본 고전의 해석을 위해 그 이전 국학 개척자들의 고증 방식만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오규 소라이의 학문과 사상적 영향도 강하게 받으며 재배되었다는 사실이다.⁷⁾ 또한 이러한 학문적 전통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증적·객관적인 문헌학을 배양해 온 학문적 전통이기도 하다.

IV. 모토오리 노리나가 이후의 『고사기』

모토오리 노리나가 사후 그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한 자에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제자를 자칭하며 자칭 스승의 국수주의적 사상을 학문적 영역에만 묶어두지 않았다. 그가 제창한 신도를 이른바 ‘복고신도(復古神道)’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그는 『고사기』의 맨 처음에 ‘다카아마하라(高天原)’라 칭하는 천상 세계에 출현하는 최초의 신 ‘아마노미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를 천지창조의 근원적인 신으로 설정한 것은 물론 천황 숭배의 절대화를 추구하며 당시까지 불교 또는 불교와 결합한 형태의 신도(神道)에 대해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사상을 근거로 외세의 때가 묻었으니 과

7) 구로즈미 마코토(黒住真, 1982:389)는 실증을 중시한 소라이의 학문 태도는 이후 일본 고전을 주로 탐구하는 국학(国学) 연구자에게도 큰 자극을 주었고 노리나가 역시 소라이의 실증적 연구 방법을 계승하여 그 대상을 ‘한학(漢學)’이 아닌 ‘일본 고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감하게 털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고야스 노부쿠니, 子安宣邦 2009:199).

심지어 ‘복고신도’의 타종에 대한 공격성은 19세기 중반 에도막부 말기에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이어지는 격동기를 맞아 히라타 아쓰타네 사후에도 존왕(尊王)주의의 신봉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각 번의 하급 무사, 신사 관리자, 상인 등 각 계층에 급격하게 번져나가면서 격렬한 존왕양이 운동의 정신적 지도 이념이 되었다. (무라카미 시게요시, 村上重良, 1988:67) 그리고 그 기세를 타고 천황의 고대 종교적 권위가 부활하며 왕정복고와 막번체제의 타도라는 정치적 목표로 직결했다.

‘국학’을 변학으로 채택한 번주들은 이른바 ‘황도(皇道)’를 내세우며 불법(佛法)의 불필요성을 선언하는 일도 나타났고 메이지유신의 주축 세력이었던 사쓰마번(薩摩藩)은 배불(排佛)운동에 나서며 번(藩)내 사원을 통폐합하고 승려를 환속시켜 관군으로 전용하기도 했다(무라카미 시게요시 1988:82). 메이지유신 직후 신정부는 고대 율령 관직이었던 ‘신기관(神祇官)’을 부활하고 히라타(平田)파 복고신도가와 국학자들을 고관에 임명하여 신도의 국교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의 활약은 이듬해 3월 태정관령으로 ‘신불분리(神佛分離)’ 하달로 이어졌고 각지의 신사 관리자들은 배불 사상을 품은 국학자와 신정부의 지방 관료와 연대하여 이른바 ‘폐불훼석(廢佛毀釋)’운동에 앞장섰다.(무라카미 시게요시, 1988:99-103)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제시한 ‘나오비노미타마’론이 실행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로써 ‘하치만대보살(八幡大菩薩)’은 ‘하치만대신(八幡大神)’으로 거듭났고 마을의 이름 모를 우상은 『고사기』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로 대체되었다. 교토 기온마쓰리(祇園祭)의 거점 야사카신사(八坂神社)의 주 제신이었던 우두천왕(牛頭天王)이 ‘스사노오’로 모습이 바뀐 것도 이 시기였다. 이로써 일본은 오랫동안 유지하던 불교국가의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한순간에 신도(神道)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고사기』는 국가신도와 황국사관, 국민국가의 문화 표상

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전거(典據)이자 성전(聖典)으로 다시 거듭났다. 이후 이른바 국가신도가 짝트며 신도의 교위는 국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까지 규제하며 초국가 사상으로 발전했고 그 기세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극에 달했다. 태평양전쟁 한창 중에는 노리나가의 자작 와카(和歌) ‘시키시마의 야まとごゝろを 人とはゞ朝日にゞほふ 山ざくら花’⁸⁾는 전쟁 찬가집 『애국백인일수(愛國百人一首)』에 수록되어 수많은 젊은이에게 애창되며 전쟁 동원을 부채질했고 심지어 가미가제특공대의 24기 중 13기는 상기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활용한 시어를 붙여 ‘시키시마(しき嶋) 부대’, ‘야마토(やまと) 부대’, ‘아사히(朝日) 편대’, ‘야마자쿠라(山ざくら) 편대’로 불렸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 천황제 국가가 성립하고 황국 절대주의로 향하는 원천이 되며 과격한 길을 걸었다는 사정은 주지하는 사실이다.⁹⁾ 그런 전과가 있었던 『고사기』는 결국 패전과 함께 근대 초국가주의를 낳은 원흉이 되어 전후 교육 현장에서 봉인되었다.

V.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고사기』론

마루야마 마사오는 패전 이후 출판된 저서 『일본의 사상(日本の思想)』을 통해 근대 일본의 파시즘 체제는 한 마디로 ‘무책임’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무책임성의 근본 요인을 일본의 ‘전통’사상에서 찾았다.¹⁰⁾ 그에 따르면 일본인 발상의 근저에는 인간의 의

8) <시키시마> 야마토 마음(혼)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묻는다면 아침 해에 향기 나는 산 벚꽃.

9) 아키야마 하야오(秋山駿, 1982:369)는 당시 ‘국가신도’는 메타종교가 되어 불교, 기독교, 교파신도, 민속신앙 등 다양한 신앙세계 위에 군림해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1:8)는 그의 저서에서 ‘전통’이란 유교와 불교, 그들과 습합하여 발달한 신도와 에도시대 국학(國學)까지를 일컫는다고 그 개

사보다도 사물의 생성, 이치나 도리보다 그 자리에서 나타난 ‘기세(勢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주체성이 떨어지고 그 주체성 부족이 정치판에서 작용하면 ‘실감(実感)’만 믿고 결단하는 정치적 무책임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를 ‘무구조의 전통’이라 말하면서 그 해석의 근거를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고사기전』에서 찾았다(마루야마 마사오 1961:8).

그는 또 다른 저서에서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고사기』의 창세신화에는 서구의 창조주적 우주관에 대비되는 초발적 우주관의 근거가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일본인에게 ‘역사의식의 고층(古層)’을 구성하는 기저 범주를 『고사기』 상권에 자주 등장하는 ‘나루(成)’, ‘쓰기(次)’, ‘이키오이(勢)’라는 세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거기에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실질을 검토해 나갔다.¹¹⁾ 『고사기』에 나타난 역사의식이란 창세신화에서 시작하는 ‘신대(神代)’가 그대로 ‘인대(人代)’ 즉 현실의 역사에도 연속되고 있다는 발상을 말하는 것인데 마루야마는 그것이 이후에도 일본인의 발상에 반영되어 일본인은 태초와 항상 역사적으로 연속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신화가 역사적 구성 속에 편입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문 사례이며 거기에 일본인의 특수한 역사 인식의 근거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대’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 ‘나루(成)’, ‘쓰기(次)’, ‘이키오이(勢)’라는 말의 의미를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해석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검토한 후 이러한 세 가지 원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본인에게 역사란, 사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연속 과정이고 그 연속적인 운동 이미지를 부여받아 한마디로 ‘다음,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세’의 선

념을 규정하고 있다.

11) 마루야마 마사오(2009:402)는 그 사과의 틀을 ‘역사의식의 고층(古層)’이라 명명했고 이것이 『고사기』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인의 사고를 제약해 왔다고 주장했다.

형적인 증식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 선형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궁극적인 목적이나 역사의 기원, 역사를 한정하는 발상은 떠오를 여지가 없고 핵심을 이루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만이 중시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는 뚜렷한 시작 없이 지금의 기세에 따라 생성되고 미래 역시 그저 지금이 다음, 다음으로 계속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될 뿐이다. 이런 역사관에서는 미래의 유토피아가 역사에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아득히 먼 과거가 역사의 규범이 되지도 못한다(마루야마 마사오 2009:361). 따라서 마루야마 마사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역사의식이 지속되는 한 일본인에게는 진정한 보수주의도, 또 이상주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지금을 그 당시의 ‘이키오이(勢い, 기세)’에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마루야마는 한발 더 나아가 이것이 문학에서 나타난 것이 ‘실감신앙’이며 그 중심에 고바야시 히데오가 있다고 겨냥했다.¹²⁾ 그가 말하는 ‘실감신앙’이란 ‘실감’을 그대로 사상으로 신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감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좁은 일상적 현실을 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적인 자아가 시공을 넘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사실을 자유로운 직관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 고바야시 히데오의 비평론을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에도시대 말기 개국부터 패전까지 이어지는 근대 일본의 역사를 실패로 간주했는데 그 이유 역시 『고사기』의 역사관에서 찾았다. 물밑듯이 들어온 외래문화가 토착 관념과 융합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동거하다가 결국 그 혼돈에서 파시즘이 생겨난 이유도 토착 사상의 풍토에는 서양의 기독교 사상처럼 강력하고 통일적 역사관이나 사회관을 지닌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은

12) 마루야마 마사오(1961:53-55)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감각적 사실, 있는 그대로 긍정 또는 실감의 존중이라는 점에 일본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보고 이것이 당시 문학계에서 고바야시 히데오를 통해 ‘실감신앙’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폐전이라는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파시즘을 극복하는 대안인 민주주의를 일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인이 간과했던 일본의 고층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며 그것은 그의 사명이기도 했다.

물론 마루야마 마사오가 제시한 일본인의 ‘역사의식의 고층’이란 『고사기』를 근거로 주장한 논리임이 틀림없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말하는 『고사기』는 모토오리 노리나가 이전의 『고사기』가 아닌 18세기 이후 모토오리 노리나가 해석한 『고사기전』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고층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마루야마 마사오의 논지가 화제를 부른 것은 근대 일본에서 『고사기』를 성전(聖典)으로 삼아 이른바 국체론적 편견이 강하게 드리워져 감히 정면승부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전후 상당수 일본문화의 비판론자들이 천황제의 이념적 문제점에만 주목했을 때 그의 주장은 ‘성역(聖域)’을 과감하게 건드리면서까지 일본문화의 고층으로 『고사기』를 다시 보는 시각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세’를 중심으로 일본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VI. 고바야시 히데오와 『모토오리노리나가(本居宣長)』

마루야마 마사오가 ‘실감신앙’의 당사자로 저격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의 이력은 화려하다. 1902년 출생하여 청년기에 알튀르 랭보의 시를 접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 문학을 비롯하여 서양 음악, 미술, 철학, 사회시평을 넘나들며, 대담이나 강연도 자주 했고 대학에서 일본문화를 강의하는 등 말 그대로 그는 근·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문예 비평가이다. 그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범주는 서양 문예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의 근대 작가는 물론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사이교(西行)』, 『사네토모(美朝)』 등 일본 고전에도 사고의 영역을 넓혀 근대 비평

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 그런 그가 말년인 63세에 착수하여 11년에 걸쳐 완성한 장편 대작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와 후속작 『모토오리 노리나가 보기(本居宣長補記)』는 고바야시 문예의 총결산이자 그의 문학 인생의 종착점이기도 했다.

실제로 고바야시 히데오가 저술한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발매 후 고전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아 웬만한 일본인도 읽기 힘든 난독 문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10만부 이상 팔리는 이변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를 불렀다. 이 책은 『고사기』를 비롯하여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 일본 고전을 탐구한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비평 형식으로 논고해 간 것이다. 다만 거기에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사상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경향이 강하고 그의 학문론, 국어론, 전통론, 일본론 등을 피력하며 학자로서의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재조명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바야시 히데오는 『고사기전』에 대해서도 사건을 끼우지 않고 모토오리 노리나가 믿은 바를 그대로 존중하고 의심하지도 않고 오로지 노리나가의 문장과 육성으로 듣고 전하려 한 것임을 강조한다.(고바야시 히데오 1987:20) 모토오리 노리나가 ‘가라 고코로(漢意)’를 배제했듯이 고바야시 히데오는 패전과 함께 모토오리 노리나가에게 씌워진 국수주의자라는 낙인을 털어내고 학자로서의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재평가하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 모토오리 노리나가 남긴 1만수의 노래 중 벚꽃을 소재로 읊은 300수를 소개하면서 앞서 언급한 그의 자작 와카가 결코 체제찬양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사면한다(고바야시 히데오 1987:440-442).

고바야시 히데오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최대 업적인 『고사기전』을 완성한 일에 대해서도 그가 살던 에도시대는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나 오구 소라이를 비롯한 한학파와 게이추(契沖),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계통의 국학파가 있었고 이들 모두는 오로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고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길을 새롭게 걸어간 자들이었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모토오리 노리나가 역시 선학의 학문적 자세를 계승하여 고전의 참뜻을 알기 위해 『고사기』와 고군분투한 문헌학자임을 힘주어 강조한다(고바야시 히데오 1987:90). 그는 “나의 바램은 모토오리 노리나가에게 부여된 환경이라는 원인에서 그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밝히려는 하는 것이며 역사가가 이용하는 유력한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양자가 역사에 올바르게 질문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언제 어디선가 만나게 될 것을 믿을 뿐이다.”(고바야시 히데오 1987:41)라고 하며 사건을 끼우지 않는다. 원자료를 중시하며 고도(古道) 연구에 매진한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학문적 태도와 인물상을 포착하기 위한 고바야시 히데오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입장으로 보면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道’란 결국 ‘자기를 알아가는 길’이며 노래를 읊고 고학의 연마에 힘쓰는 것 모두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자락(自樂)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모토오리 노리나가 말하는 ‘道’의 의미를 근대적 학문의 시각으로 분석하려는 것은 마치 게이추, 가모노 마부치, 오규 소라이 등 고학 연구자들의 말만 빌리고 알맹이를 빼놓은 채 현재의 학문 객관주의에 맞춘 쓸데없는 오해라고 비판한다(고바야시 히데오 1987:91).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야마토 고코로(大和意)’, ‘이니시에 고코로(古意)’에 대한 고찰도 흥미롭다. 상고시대는 구어(口語)만 존재했던 ‘야마토 고토바’의 세계였으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고어 속에 외부에서 한자가 들어온 혁명이 바로 『고사기』 시대였고, 구전 속에 고어가 한자 및 한문이라는 형식으로 쓰이게 된 고대인의 언어 생활에 나타난 이변은 엄청난 일이었을 것’이라고 고바야시는 추론한다. 이어 고바야시 히데오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대 일본의 역사는 외국 문명의 모방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의미를 묻고 그 답을 찾아 복잡한 문체를 ‘훈법’으로 판정한다는 일본어에 관한 일본인의 첫 반성이 『고사기』를 쓰게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¹³⁾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고바야시 히데오가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학문적 업

적을 심리적 추이로 파악해 가며 당시 그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의 학문·인품·삶의 방식과 거듭 자기의 삶과 동기화하려는 서술 의도가 잘 나타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Ⅶ. 맺으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일컬어지는 『고사기』의 역사적 수용성과 그 속에서 재배된 일본문화의 고층으로써 제기된 『고사기』의 명암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고사기』의 성립 및 문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그와는 상관없이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일본문화의 고층에 『고사기』가 있었다는 것을 발굴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고사기』를 해석하며 제시한 ‘가라 고코로(漢意)’와 ‘야마토 고코로(大和意)’는 직접적으로 유학과 불교 등 대륙의 철학사상 체계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었으나 넓은 의미로는 중국을 비롯한 외래사상과 일본 정신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학문적 ‘실감’을 결여한 히라타 아쓰타네의 ‘국학’은 사상 운동으로 변질하여 『고사기』는 에도막부 말기와 메이지유신이라는 격동기를 거치며 이른바 ‘국가신도’의 성전이 되었고 명확한 교의가 없었던 신도(神道) 역시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해석인 ‘간나가라(惟神)’를 교의로 수용하며 초국가주의를 고양하는 전거(典據)로 작용하여 긍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했다. 패전 후 일본을 대표하는 평론가 마루야마 마사오

13) 고바야시 히데오(1987:344-345)는 ‘고학’의 중요성은 방법보다 오히려 ‘결단’에 있으며 노리나가는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면서 상대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 스스로 ‘문어’의 세계로 들어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려는 것이 최상이라고 확신한 노리나가가 스스로 『고사기』 주석을 ‘결단’하게 만들었고 그로부터 35년, 노리나가의 독창적인 ‘한문 훈독’이 찾아낸 고투의 결정이 바로 『고사기전』이었다고 평가한다.

와 고바야시 히데오라는 두 지성인의 『고사기』를 보는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국수주의적 사상성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며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여전히 재배되고 있다. 『고사기』가 근대와 같은 초국가주의 성전으로 더 이상 활용되는 일은 당분간 없겠지만 과거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쌓여 온 질서를 ‘신의 길’로 긍정하려는 자세는 여전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실증 중시 학문 태도와 ‘실감’ 중시의 문학성은 고바야시 히데오를 통해 여전히 전통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바야시 히데오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문장과 육성을 재현하면서도 일본인이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았다. 일본문화를 우수하다고 찬양하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일본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선동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의심하는 힘에 근거를 두고 전통을 닦아가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정치 사상을 연구하며 사회 비평가로 활약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그의 고층 비판은 정치 사상적이고 객관적이고 외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고바야시 히데오는 일평생 문예평론가로 숙명을 다한 만큼 그의 비평은 개성이 강한 문학적이고 내성적이라 할 수 있다. 활동반경이 서로 달랐다고 해도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은 당시 좌담, 대담의 명수라는 세평이 있었던 만큼 양자 간 대담이 이루어질 만도 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마루야마 마사오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고바야시 히데오의 ‘실감신앙’을 비판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고바야시 히데오는 마루야마 마사오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으나 언론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마루야마 마사오를 위시한 이른바 ‘진보적 문화인’을 역비판하기도 했다.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두 지성인의 ‘고층’을 바라보는 시선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약한 만큼 다른 접근법을 채택했으나 두 사람이 일본문화에 대해 말할 때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일본문화의 고층을 『고사기』에 두고 이를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고사기전』과 동기화하면서 전통에 가치를 두고 치밀하게 탐구했다

는 점, 다음으로 일본문화는 문헌이나 역사적 사실로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정신으로 재배되어 계승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냉철하게 파악하면서 중단없이 재발견하고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 역시 일본문화론의 연구 대상임이 분명하다.

■ 참고문헌

- 津田左右吉(1963), 『日本古典の研究(上)』(津田左右吉全集第一卷), 岩波書店, 10-11.
- 丸山眞男(1961), 『日本の思想 (岩波新書)』, 岩波書店.
- 西郷信綱(1970), 「直毘靈」『日本の名著21・本居宣長』中央公論社.
- 三谷栄一(1974), 『日本神話の基盤-風土記の神々と神話文学』, 塙書房, 34.
- 相良享(1978), 『本居宣長』, 東京大学出版会, 9-10.
- 黒住眞(1982), 「荻生徂来」, 『現代思想(第十卷十二号)』, 青土社, 389.
- 秋山駿(1982), 「本居宣長-揺れ動く心」, 『現代思想(第十卷十二号)』, 青土社, 369.
- 小林秀雄(1987), 『本居宣長』, 新潮社.
- 村上重良(1988), 『国家神道(岩波新書)』, 岩波書店.
- 小林秀雄(1987), 『本居宣長』, 新潮社. 457.
- 尾藤正英(2000), 『日本文化の歴史』, 岩波書店, 19.
- 小林秀雄(2004), 「文化について」『小林秀雄全作品(第17集)』, 新潮社, 181-185.
- 梅棹忠夫(2005), 『日本文明77の鍵』, 文芸春秋社, 6-7.
- 子安宣邦(2009), 『平田篤胤の世界』, ペリカン社, 199.
- 丸山眞男(2009), 『忠誠と反逆(ちくま学芸文庫)』, 筑摩書店.
- 斎藤英喜(2012), 『古事記・不思議な1300年史』, 新人物往来社, 96.

❖ ABSTRACT

The old layer of Japanese culture,
the Light and Shade of “Kojiki”

Lee, Changsoo
Kyunghee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acceptance of "Kojiki", Japan's oldest existing literature, and its contrasting position as the ancient layer of Japanese culture. Norinaga-Motoori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recognizing that "Kojiki" belongs to the ancient layer of Japanese culture. Furthermore, his concepts of "Kara-gokoro" and "Yamato-kokoro" were used to critique systems like Confucianism and Buddhism, but in a broader sense, they were an attempt to explain the distinction between foreign ideas and the Japanese spirit. Norinaga's ideas later evolved into an ideological movement known as the Restoration of Atsutane, which lost its academic rigor. During the turbulent period at the end of the Edo Shogunate, "Kojiki" served both as a "sacred text" promoting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ism. By comparing the reception of "Kojiki" by two post-war Japanese intellectuals, Masao-Maruyama and Hideo-Kobayashi, we observe that Norinaga's nationalistic ideology continued to be fostered through Maruyama's critical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Kobayashi continued Norinaga's empirical academic approach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real sense" in literary works. Although Maruyama and Kobayashi never directly conversed, Maruyama criticized Kobayashi's notion of "real

sense" in his book, while Kobayashi indirectly criticized Maruyama and other "progressive cultural figures" through the media. Despite their differing views on the ancient layer, they both recognized that "Kojiki" held Japan's esteemed cultural heritage and that its elements were carefully explored and cherished as a tradition that persists to this day. They also agreed that Japanese culture is not only inherited through historical facts but is also nurtured and passed down through the spirit of its people, an unbroken reaffirmation.

Keywords: Kojiki, old establishment, Norinaga-Motoori, Masao-Maruyama, Hideo-Kobayashi

■ 논문투고일 : 2024. 05. 07

■ 심사완료일 : 2024. 06. 03

■ 게재확정일 : 2024. 06. 11